

# 悲劇意識과 人間영혼의 구원

—The Heart of the Matter를 中心으로—

申 正 鉉

## I

現代小說의 主人公들이 小市民化 되었다는 말은 이미 文學批評에서 상투어가 되어 버렸다. Conrad小說의 主人公 Lord Jim, Kafka小說의 主人公 K. 혹은 Kingsley Amis나 John Wain의 小說에 등장하는 'angry young man'들처럼 近代小說의 대부분의 주인공들도 이미 非英雄적 人物로 設定되어 있다. 勿論 現代小說의 主人公들이 非英雄화되는 現象은 西歐社會의 性格을 規定지웠던 政治的·社會的·宗教的 變化와 함께 文學 자체의 흐름의 변화와도 밀접한 關聯을 갖고 있으며, 이는 20세기 文學 現象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낭만주의 文學의 英雄주의에 반기를 들었던 Stendal, Flaubert, Maupassant 및 Zola와 같은 寫實主義作家들에 依해서 始作되었던 作中主人公으로서 非英雄적 人物을 등장시키려는 움직임은 19세기 寫實主義作家들이나, 自然主義作家들의 外形의 非英雄주의로부터 20세기 心理小說作家들의 內面的 非英雄주의로 그 폭을 넓히면서, 現代小說에서 'hero'의 概念은 完全히 그 用語의 意味를 잃고 말았다.

現代小說의 주인공을 'non-hero'나 'anti-hero'나 하는 다소 저질의 用語들로 規定하려는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存在하는 超人間的 능력에 對항하는 人間의 장엄함을 否定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人間이 그러한 힘에 對항하고 패배하는 일이 內面化되고 個別化되었다고해서, 그러한 힘에 對항하는 人間의 모습이 결코 장엄함을 잃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Graham Greene은 이러한 意味에서 悲劇의 부활을 시도한 20세기 作家이다. Gregor Roy나 Fredric R. Karl이 지적

하고 있듯이 Graham Greene은 그의 特有의 方法으로 'hero' 概念의 부활을 시도하고 있다. 그는 우리 時代에 맞는 평범한 小市民을 그의 主人公으로 選擇했고 그에게 시련과 고통을 겪게 함으로써 悲劇의 主人公으로서의 영웅적 지위를 갖게 했다. Greene은 낭만주의 작가들이 창조했던 類의 영웅적 人物들은 진정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現代社會에서도 희랍비극속에서 보여질 수 있는 영웅적 人物은 存在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그는 희랍비극의 영웅성을 現代人에게 부여함으로써 現代의 悲劇을 만들었다. 勿論 그는 運命이나 Zeus와 같은 人間을 농락하는 절대적인 힘을 다루지는 않았다. 그는 붕괴된 가치와 부서진 理想이 가져다 주는 悲劇을 그렸다. Greene이 그려낸 Scobie나 Whisky Priest 같은 人物들은 地上에서의 罪로 인해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까지 타락하는 人物들로, Graham Greene은 Aristotle의 沒落의 概念을 그 색채를 달리해서 받아 들이고 있다.

그러나 Graham Greene은 그의 主人公들에게 영웅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희랍시대나 중세의 비극작가들 보다 심각한 시련을 겪어야 했다. 희랍시대나 中世의 비극작가들은 그들이 창조한 悲劇의 人物에 대해 作家와 청중이 다같이 共感하는 一體感속에서 劇을 쓸 수 있었다. 즉 청중은 悲劇의 主人公의 삶의 테두리 안에서 함께 살고 있었으며, 그가 處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가 가진 宗教나 信念을 상당부분까지 共有하고 있었다. 그러나 現代人들은 어떤 特定人의 宗教나 信念에 전적으로 共感할 精神의 지주를 갖고 있지 못하다. Marlaux는 *The Temptation of the West*에서 現代人의 精神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대들에게 있어서 절대적 現實은 처음에는 神이었고 그 다음에는 人間이었다. 그리고 神을 따라 人間도 죽었다. 그 다음 그대들은 人間의 이상한 유산을 맡길 무엇인가를 애써 찾고 있다.” 이러한 現代人의 精神의 표류상태에 現代悲劇作家의 고뇌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가능하면 많은 現代人들에게 共感帶를 形成해 줄 特異한 환경과, 主人公들의 갈등에서 오는 보다 절박한 긴장감을 그들의 비극속에서 설정하고 불어넣을 必要性을 갖는다. Graham Greene은 人間으로서의 弱點과 限界性을 가진 그의 主人公들을 宗教的·道德的으로 不毛狀態에 있는 삶의 現場으로 던져놓고 神의 領域까지 침범하는 理想을 가진 人間과, 그 理想을 넘보다가 악마의 경지까지 타락하는 宗教人들의 모습을 그리면서, Catholic의 立場에서 지켜야 할 人間의 矜持와 그 矜持를 지키려는 몸

부림과 파멸을 보여준다. 그러나 Graham Greene의 이러한 悲劇들이 現代人들에게 희랍시대나 中世의 悲劇作家들이 그들의 청중들에게 주었던 만큼의 悲劇的 效果를 줄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 II

삶에 대한 否定과 肯定은 人間의 行動樣式을 決定하는 重要한 二大要素로서 作用해왔다. 人間의 삶에 대한 肯定行爲의 標本은 ‘各個人의 個別的 無意識이 時空을 초월한 어떤 形態의 集團無意識으로 連結될 수 있다’는 Maud Bodkin여사의 再生慾求에 대한 原型理論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人間이 삶에 대해 否定的 態度를 취할 때 그는 그의 存在에 意味를 부여하기 爲해 어떤 일을 해왔는가’라는 質問에 직면하게 된다. 이것은 한마디로 悲劇的 삶에 대한 美化作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悲劇的 삶속에 內在하는 悲劇美를 發見하려는 이러한 노력은 Kierkegaard의 다음 말에서 준엄하게 요약된다. “만약 人間의 삶의 주변에 이르기 어려운 正열로 勇솟음치는 어떤 힘이 깔려 있고, 그 삶속에 영속하는 어떤 의식이 없다면 삶이란 절망 이외의 무엇이겠는가?” Kierkegaard가 말하는 삶을 ‘절망 이외의 무엇’으로 만들어 주는 ‘영속하는 의식’은 分明 人間의 存在와 더불어 人間의 마음 한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고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人間의 모든 것을 송두리채 삼켜버리는 끝없는 空虛속에서도 人間의 矜持를 지켜왔다.

그러나 人間이 맞서 싸우는 가차없는 힘은 時代에 따라 그 양상을 달리한다. 희랍비극에서 人間을 절망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던 것은 運命에 맞선 人間의 無力함이었고, Shakespeare劇에서 人間을 끝없는 空虛속으로 몰아 넣었던 것은 宿命도, 의연한 도덕적 秩序도 아닌 이르기 어려운 神性에 맞선 人間의 無力함이였다. 그러나 科學의 發達로 自然을 정복했다고 생각하는 現代人은 그들의 悲劇이 어떤 힘으로 부터 오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단지 그들의 삶이 悲劇的이라는 것을 느낄 뿐이며, 자기 제 나름대로 비극을 몰고 오는 힘을 規定짓고 있을 따름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이 悲劇의 形式으로 劇化되었을 때 그것은 George Steiner가 *The Death of Tragedy*에서 말하고 있듯이 小數에게만 人間의 궁극성을 제시하는 小數를 위한 悲劇이 되어 버리고 만다.

Graham Greene은 이러한 現代的 상황하에서 小數단을 위한 悲劇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人間의 궁극적 깨달음을 주는 悲劇을 小說의 形式으로 보여주려고 시도했다. 아마 Murry Krieger가 *The Tragic Vision*에서 주장했던 ‘小說의 無形성이 우주에 맞선 現代人の 悲劇意識을 表現하는데 보다 적절하다’는 見解를 Graham Greene은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가 小說이라는 無型的 形式을 통해 보여 주려했던 現代人の 悲劇意識은 神에 맞선 人間의 無力함이다. Graham Greene의 文學에는 그 저번에 神에 맞선 人間능력의 限界性에 대한 궁극적 悲劇意識이 깔려있다. 그러므로 그는 희랍시대나 中世의 悲劇作家들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世界를 하나의 아이러니(irony)로 規定한다. 즉 人間은 높은 精神的 理想을 設定할 수는 있으나 거기에 도달할 수는 없으며 거기에 도달하려는 자는 반드시 심각한 精神的 苦痛을 수반하는 자기 파멸에 이르고 만다는 것이다. Scobie나 Whisky Priest는 모두 도달할 수 없는 理想을 設定하는 Greene의 悲劇的 主人公들이며, 도달할 수 없는 目標을 達成하려는 노력에서 덧에 걸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그러나 Graham Greene의 悲劇意識은 삶이라는 悲劇的 現象에 人間 영혼의 求援이라는 問題를 결부시킴으로써 宗教的 여운을 남긴다. Graham Greene의 神에 대한 意識속에는 神이 人間의 삶을 悲劇的으로 만들어 준다는 悲劇意識 以外에 人間의 영혼을 고결하게 해 준다는 求援意識이 자리하고 있다. Graham Greene에게 있어서 神은 그의 屬性을 넘보는 자에게 가혹한 처벌을 내리는 對항할 수 없는 힘을 가진 存在이지만 가장 가치없는 자의 영혼에까지도 구원의 손길을 뻗는 가장 자비로운 神이다. *Brighton Rock*에서 Pinkie는 Catholic으로서 惡을 意識하기 때문에 더욱 惡에 민감하고, 그래서 精神的으로 가장 연약한 存在이며, 그러므로 오히려 구원의 가능성을 많이 가진 存在이다. *The Heart of the Matter*에서는 Scobie가 神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모든 外形的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Pinkie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제시했던 신부는 ‘Scobie는 神을 진정 사랑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즉 Graham Greene은 그의 主人公들로 하여금 神을 향해서 그들 스스로를 초월하게 하며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붕괴된 가치들을 초월하게 한다. 그들은 不正으로 歪曲된 社會, 精神的으로 價値가 결여된 社會, 歷史가 안겨준 陳痛을 겪고 있는 社會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을 爲해서 최선을 다한다. 그들의 궁극적 고뇌는 자신들의 어떠한 노력도 그들의 理

想을 達成시켜 주지 못하며 그것은 오히려 자신들을 파멸로 이끌어 갈 뿐이라는 神 앞에서의 자신들의 無力함에 대한 깨달음에서 오지만, 그들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지옥으로 가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할 때 神은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는 것이다.

### III

*The Heart of the Matter*는 Graham Greene의 여러 小說들 가운데서 그의 悲劇意識이 가장 잘 나타난 小說이다. 여기에는 흡인력을 가진 악마와 구원력을 가진 神의 두개의 대립되는 世界가 있고, 이 두 세계의 충돌이 있다. 이러한 두 세계의 충돌의 현장은 뜨거운 열이 人間의 判斷力을 마비시키는 南部 아프리카 대륙이며, 여기에서 한무리의 人間의 標本들이 人間의 悲劇을 연출한다. Graham Greene는 人間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려다가 자신이 악마의 세계로 빨려들어가는 Scobie의 파멸을 中心으로 한 同心丹的 나선형 단일 plot와, 과거와 現在를 무리없이 連結시켜주는 連상법, 內面的 心層構造를 非論理的으로 보여주는 꿈의 手法으로 人間의 悲劇의 한 단면을 보여 준다.

*The Heart of the Matter*에서 Graham Greene의 悲劇意識은 먼저 등장인물들의 行動의 場이 갖는 人間感情에의 呼訴力에서 表現된다. 人間의 情緒作用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풍토(This isn't a climate for emotion, p. 31)에서는 Scobie가 감지하고 있듯이, 증오뿐만 아니라 사랑의 感情도 人間의 머리를 돌게 한다. 이러한 世界는 “人間의 비열함과 不正이 動物園에 動物의 냄새가 배어 있듯이 배어있고”, 人間의 原罪의 業報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世界이며, 罪를 짓고 감옥에 들어간다는 것이 조금도 굴욕이 되지 않는 세계이다. 왜냐하면 人間은 Adam과 Eve의 原罪로 해서 어느 누구도 Eden의 동쪽이라는 감옥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There is no disgrace about prison; it was an obstacle that no one could avoid for ever, p. 23). 이러한 세계에서는 어느 누구도 人間의 地上에서의 幸福을 이야기 할 수 없으며 천국은 오직 죽음 저편에만 있다. 여기에서는 바로 人間의 最惡의 모습이 보여지며, 神처럼 人間도 人間을 사랑할 수 있고, 人間을 연민할 수 있다. 즉 Graham Greene은 이 作品에다 환경이 갖는 分圍氣의 效果를 충분히 고려해 넣음으로써, 마치 Macbeth나 Hamlet에 나타나는 음울한 分圍氣가 Sha-

Shakespeare劇을 自然스럽게 悲劇으로 흘러들어가게 하듯이 Scobie의 삶은 조금도 무리없이 悲劇으로 유도해 간다. 뜨거운 열과, 썩어가는 動物의 시체, 人間의 運命에 불행을 예고하는 독수리는 Scobie의 파멸과 죽음의 서곡으로서 장황한 설명을 대신하고 있다.

이러한 풍토위에 Graham Greene은 透明膜으로 유리된 三次元의 人間 세계를 設計한다. 그 하나는 자신들의 치부를 알지 못하는, Adam과 Eve가 선악과를 따먹기 以前에 存在했던 人間들의 世界이며 이들은 Scobie의 연민으로 하느님이 Abraham에게 약속했던 平和를 얻어야 할 必要가 없는 자들이다. 다른 하나는 자신의 치부를 完全無缺하게 위장하려는 Wilson과 Louise의 世界이며, Eden의 동산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한번 침입해 들어가 지식의 열매를 따먹은 자들이 보다 추악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 본 세계이다.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들여다 본 자들의 마음속에 平和가 있을리 없다. 그리고 지식의 열매를 두번씩이나 따먹은 자들은 Christ의 대속으로는 平和를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들은 人間으로서의 한계성을 가진 Scobie의 연민을 必要로 한다. 그러나 Scobie의 人間으로서의 限界性を 가진 代贖者로서의 기능은 Greene의 悲劇들 全體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Greene의 悲劇의 主人公들은 男性으로서, 人間이 가지는 基本的인 心理的 向性(orientedness)과 制度와 습관에서 오는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Scobie가 함께 살아가는 第三의 世界는 Helen이 보여주는 世界이다. 비록 그녀는 文明과 神의 어느쪽에 의해서도 손상되지 않고 도덕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로 던져지지만 Eve의 原罪로 인해 곧 俗化될 것이고, Scobie의 연민과 Scobie가 주는 平和를 가장 필요로 할 것이다.

Graham Greene은 이러한 세가지 유형의 人間의 標本들과 함께 살아가는 Scobie에게 必要하다면 우주속의 혹성까지도 연민할 수 있는 무한한 연민의 感情을 불어 넣음으로써 Scobie를 悲劇的 주인공으로 만든다. Scobie는 自身도 어쩔 수 없이 느끼는 연민의 感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But it [pity] was not a question whether she [Helen] wanted it—she had it. Pity smouldered like decay at his heart. He would never rid himself of it. He knew from experience how passion died away and how love went, but pity always stayed. Nothing ever diminished pity. The condition of life nurtured it. There was only a single person in the world who was unpitiable, oneself. (p.178)

Scobie가 가진 이러한 연민의 情은 必要할 때에는 언제나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automatic pity'(p.206)일 뿐 아니라, 人間으로서 그는 그 어느 누구도 경험한 적이 없는 'the terrible promiscuous passion'(p.159)이다. Scobie가 가진 이러한 연민의 感情은 分明히 人間이 人間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感情이 아닌 神만이 베풀 수 있는 연민으로 Scobie라는 人間을 파멸케하는 비극적 결함이며, 그것으로 인해 그는 40대의 完全히 성적 매력을 잃어버린 女人을 사랑하게 되고, 난파선에서 구조된 추악한 20대의 Helen을 사랑하게 된다. 즉 그는 神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연민의 感情을 가짐으로 해서, 아름다움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고, 그 아름다움이 자기만의 것이기를 바라는 人間の 영역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게 되고, 퇴색되어 가는 아름다움이나, 추악한 외계에 대해서 일종의 배신감을 느끼는 人間の 常情을 지워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The Heart of the Matter*는 同心丹의 나선형 plot로 展開되는, 人間으로서 분에 넘치는 연민의 感情을 가진 Scobie의 죽음에로의 여정을 묘사한 것이다. Graham Greene은 먼저 그의 아내인 Louise를 연민의 대상으로 하고, 그의 죽은 딸을 닮아오는 어떤 상황에 대한 연상(聯想)의 根源으로 함으로써 Scobie의 行動에 대한 개인성을 부여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성적 매력을 잃었다 할지라도, 불행해하는 아내를 보고 연민의 情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前生의 인연으로 해서 태어난 딸이, 비록 죽었기 때문에 그 애에 대한 의무감은 없어졌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속에서 特定人物에 의해 연상되고, 그 人物이 죽은 딸의 모습으로 환원되어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마음 속에서 制度的 의무와 人間の 義務가 상충될 때 Scobie는 社會制度에 대해 罪를 지으리라는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Scobie는 Esperanca號의 선장이 戰時 中立國法을 어기고 딸에게 보내는 便紙를 發見했을 때, 人間이 만든 制度속에서 경찰관의 職務에 따르기 보다는 '추악한 어린애'의 모습으로 환원되어 나타나는 선장의 모습을 연상하면서 그것을 불태워 버리고는 '삶은 現實 이상의 것이다(mais que a vida)'(p.54)라고 절규한다. '眞實이 어느 누구에게도 가치를 가져본 적이 없는 이러한 現實 以上の 삶'은 平和를 갈구하는 Louise에 대해서도 例外는 아니다. 그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약속으로 비참한 모습을 자기의 아내를 잠재우면서, 神과 社會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에게 平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다.

Pamberton 사건은 Scobie의 沒落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Graham Greene은 이 사건을 도입함으로써 3가지 效果를 追求한다. 첫째로 事件現場으로 가는 도중에 Scobie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평화를 위해 자신의 平和를 희생할 것인가 라는 問題에 대한 Scobie의 복잡한 心層構造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는 Ali와 Scobie의 정신적 결합이 Scobie의 安全에 매우 중요하며, Ali와 유대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곧 신뢰감의 상실을 意味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으며, 세째로 Pamberton의 자살에 대해 구원의 가능성을 시사함으로써, Scobie가 자기 파멸의 과정에서 자살을 하더라도 구원 받을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Pamberton의 자살사건 이후 Scobie는 자기 파멸의 두번째 단계에 도달한다. Yusef에게 돈을 빌려서 아내를 휴양처로 보냄으로써 정신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Scobie의 自我는 Book II에서 Helen Rolt와의 關係에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타락한다. 40여일 동안의 표류 끝에 구조되어 온 난파선에는 Scobie의 동정을 필요로 하는 처참한 두 生存者들이 있다. 그들은 둘다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人間들이다. Scobie는 그들을 바라 보면서 ‘하나의 책임을 면하고 나면 또 다른 책임을 떠맡도록 人間은 운명지워져 있으며, 그러한 人間은 자기 혼자 뿐일 것이다’는 엄청난 오만에 빠지게 된다.

Scobie는 자기의 생명을 위해 어떤 조그만 일도 할 수 없는 Helen Rolt의 조그만 딸을 위해 ‘자기의 영원한 평화를 저 어린애에게 가져다 주소서’ 하고 기도한다. 그러나 그 어린애는 죽는다. 죽은 자에게는 의무감이 없다. 따라서 Scobie는 자기의 행복을 위해 아무일도 할 수 없는, 그 어린애와 똑같이 무력한 Helen에게 연민의 정을 느낀다. 그녀는 오직 우표책을 손에 쥐고 있는 것 이외에는 아무일도 할 수 없고, 그녀의 남편은 배가 표류할 때 죽었다. 社會의 觀念과 人爲的 法律을 범했던 Scobie가 이런 소녀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간음’이다. 그는 이 세상의 다른 人間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神에 대한 자신의 마지막 安全策인 神의 誠命을 지키는 일까지도 포기하는 것이다. 그는 이제 천주교가 가르쳐 주는 神의 效用性을 判斷해야 할 단계에 이른 것이다.

여기에서 Graham Greene은 小說의 흐름에 얼마만큼의 ‘休止’를 제공한다. 이러한 休止는 plot의 展開과정에서 두가지 목적을 달성해 준다.



그 중 하나는 A.C. Bradley가 Shakespeare悲劇의 分析過程에서 言及한 바 있는 “너무 간단한 결말을 爲해서 너무나 긴 준비를 했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많은 批評家들이 비난하고 있는 신경증 환자로서의 Scobie에 대한 정당성의 부여이다. Scobie는 Wilson의 그 무력하고도 팔사나운 모습을 보고도 조금도 연민의 情을 느끼지 않는다. 이는 人間으로서 대속자의 기능을 수행하는 Scobie의 당연한 반응이며 또한 限界이다. 왜냐하면 남성인 Scobie의 Wilson에 대한 感情이 상호 引力的이라기 보다 상호배척적인 것은 자연스런 現象이기 때문이며, 社會的·制度的으로 Wilson에 대한 어떠한 의무감도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얼마간의 休止기간이 지나면 Graham Greene은 다시 Scobie의 파멸을 위해서 새로운 사건을 준비한다. Louise가 휴양처에서 돌아오고, Scobie는 미사에 參席하도록 강요당한다. 그는 이제 ‘Black Mass’를 하느냐 Helen의 행복을 위한 어떤 조그만 행동이라도 하느냐의 選擇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Scobie는 여기에서 Dostoevsky의 「惡靈」에 나오는 神들린 주인공처럼, Helen의 행복을 저버리지 않고 神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치절한 애원을 한다. 그러나 천주교회의 하느님은 단호하다. 하느님은 그에게 Helen을 버리라는 단 하나의 행동만을 요구할 뿐이다.

There is only one answer: to knell down in the confessional and say, 'Since my last confession I've committed adultery so many times etc, etc. (p. 219)

그는 자기 자신에게 그가 그녀를 버릴수 있겠는지를 물어본다. 이 물음에 대한 자신의 대답도 역시 否定的이다.

He shook his head. ...He said, 'I was wrong to come, Father.' (p. 221)

그는 죽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느니 보다 죽음으로 神에게 고통을 주리라고 결심한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을 條件으로 神과 흥정을 벌인다.

'O God,' he said, 'if instead I should abandon you, punish me but let the others get some happiness.' (p. 220)

그러나 神은 한 발자욱도 물러서지 않는다.

All you have to do now is ring a bell, go into box, confess...the repen-

tance is already there, straining at your heart. It's not repentance you lack, just a few simple actions: to go up to the Nissen hut and say good-bye. (p. 259)

Scobie는 Ali의 피살에서 느끼는 신뢰의 상실감과, Helen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는 절망감 속에서, Pamberton의 자살과 예수의 자살이 가져다 주는 지옥의 意味를 음미한다. 지금 Pamberton의 자살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저렇게 무관심하게 이야기되고 있듯이, 예수의 자살에 대해서도 2000년동안 그렇게 무관심하게 이야기 되어 왔으리라고 Scobie는 생각한다. 그리고 '지옥'이란 불길 속에서 받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의 영원한 상실감(a permanent sense of loss)라고 단정한다. 이제 그는 빠져 나올 수 없는 덫에 걸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는(I am trapped, he thought himself, Catching sight of an expressionless stranger's face in the driving mirror, trapped. p. 220) 神에게도 양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의무를 명백히 천명하면서 죽어간다.

I am not police for nothing—responsible for order, for seeing justice is done. There was no other profession for a man of my kind. I can shift my responsibility to you...I can't make one of them suffer so as to save myself. (p. 259)

人間으로서 대속자의 기능을 수행하려 했던 Scobie의 죽음은 이처럼 장엄하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곧 神性を 넘보는 자에 대한 神의 가혹한 처벌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Graham Greene는 Scobie의 神에 대한 이처럼 철저한 반항에도 불구하고 천주교의 교리를 넘어서서 Scobie의 영혼의 구원 問題를 論하고, 신부로 하여금 "Scobie는 神聖을 모독했으나 神을 미워한 적은 없다. Scobie는 神을 사랑했다"고 선언하도록 함으로써 Scobie의 영혼에 구원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 IV

*The Heart of the Matter*에서 超人間的 힘을 가진 神에 도전하는 小市民的 現代人の 장엄함을 가지고 現代의 悲劇을 만들려고 했던 Graham Greene의 노력은 뚜렷하다. 神과 人間을 同時に 사랑하다가, 人間の 무력함에 대한 연민으로 社會와 관습에 罪를 짓고, 결국에는 神聖을 모독하게 되는 主人公이 자기의 영혼을 바쳐 神에 反抗하는 모습은 장엄이

상의 것이다. 그리고 人間 영혼의 질서까지를 追求하는 경찰관으로서의 주인공의 設定도 참신하며, 人間의 無力함이 보다 부각될 수 있는 人物들의 행동의 무대도 적절하다. 그러나 表現技法의 面에서 이 소설은 무미건조한 문체속에 기계적으로 展開된 plot, 수학적 言語의 사용, 상징의 단순성, 장황한 사건의 도입으로 인한 긴장감의 완화, 변화와 대조의 결핍 등의 단점을 가짐으로 해서 주제면에서의 참신함을 용해시키지 못하고 있다.

